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 Focusing on Japanese Hongdohoe Library -

김 영 석(Young-Seok Kim)\*  
이 용 재(Yong-Jae Lee)\*\*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이론적 배경            |
| II. 연구 목적 및 방법 | IV. 일본홍도회도서관 설치·운영의 의미 |
| 1. 연구 목적       | V. 맺음말                 |
| 2. 연구 방법       |                        |

### 초 록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사서들은 일본홍도회도서관을 한국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홍도회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을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및 재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일본홍도회도서관은 우리나라에 건립되었지만 일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둘째, 도서관은 일본인들을 위해 건립되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되었다. 셋째, 장서의 대부분은 일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산에 도서관을 건립한 일본홍도회는 일제강점기 전과 그 기간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단체인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도서관사, 공공도서관사, 홍도회, 홍도회도서관, 부산도서관

### ABSTRACT

Many researchers and libraria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a in Korea and Japan claim that Japanese Hongdohoe Library is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claim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Hongdohoe Library was established in Korea but was established by Japanese. Secondly, the library was established for Japanese in Busan and operated for a long time for the use of Japanese people in Busan. Thirdly, most of the collection of the library were revealed as Japanese materials. Fourthly, the Japanese Hongdohoe which established the library was the organization that supported Japanese militarism before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Keywords: Public library history, Hongdohoe, Hongdohoe library, Busan library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skim7@mju.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31-150,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6.131]

## I. 머리말

이 연구는 2018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어느 행사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한 원로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시작되었다. 그 교수님은 최근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사 연구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던 저자에게 큰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공공도서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저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공공도서관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과거 역사를 잘 이해하여야 함을 깨달았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석두(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9, 5)는 ‘자료는 시공을 뛰어넘으며 역사는 현재와 연결되어 역사 연구가 곧 현재의 연구가 되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역사 다시 보기이며, 이는 현재의 여러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도서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초기 역사가 부산에서 시작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공동 연구자와 함께 부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초기 공공도서관 역사의 발자취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많은 문헌에서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더불어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에 대한 역사 기술이 사실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인 상황과의 관계속에서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일본에 의한 우리나라 식민통치일 것이다. 우리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주권은 말살되었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우리가 이용하고 즐길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바로 전과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은 일본의 강압적인 한국병합이라는 그 시대의 상황과 연결지어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바로 전에 ‘일본홍도회부산지부’라는 일본인 단체에 의해 건립되고,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그 운영이 계속된 일본홍도회도서관의 건립·운영에 대한 의미는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세기 초 우리나라 초기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야를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은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밝히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일본홍도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재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본 연구가 기술된 역사, 즉 우리나라 초기 공공도서관 역사를 재조명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을 조사·분석하는 문헌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둘째는 연구대상이 지금부터 110여년 전에 존재했던 도서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실체는 없다. 그러나 그 도서관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지역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과 주변 환경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수년 전에 함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일본홍도회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직접 탐방하였다.

## Ⅲ. 이론적 배경

### 1. 본 연구에서의 일본홍도회도서관 명칭

문헌조사·분석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홍도회(이하 홍도회)가 처음 설치·운영했다는 도서관 관련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 학자들의 명칭은 ‘독서구락부’, ‘부산독서구락부’, ‘홍도회도서관’, ‘홍도회도서관’, ‘홍도도서관’, ‘부산도서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홍도회가 설치·운영했다는 도서관 관련 시설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문헌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홍도회부산지부 회원들은 1901년에 독서구락부 즉, 독서클럽(club)을 조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토 카즈오 등이 기술한 그 당시 다른 지역 독서회에 대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2호)

한 설명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카토 카즈오 등(2009, 190)은 ‘목포의 일본인 유지들은 도서 공동구매를 위하여 회원제 목포독서구락부를 조직하였다.’라고 하였다.

<표 1> 홍도회도서관에 대한 연구자별 사용 명칭

집필자	사용한 명칭
김포옥(1979)	부산도서관
김세익(1982)	독서구락부, 부산도서관
백 린(1982)	부산독서구락부 <sup>1)</sup> , 부산도서관
김경자(2003)	홍도회도서관, 독서구락부, 문고, 부산도서관, 용두산의 도서관
카토 카즈오 등(2005) <sup>2)</sup>	부산독서구락부
김남석(2010)	홍도회도서관, 부산도서관
윤희운(2010)	홍도도서관, 부산독서구락부, 부산도서관
곽철완(2012)	부산도서관
최순남(2013)	홍도회 도서관

즉, 홍도회부산지부 회원들은 처음에 독서클럽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공동으로 책을 구매하고, 자신들이 구매하여 읽고 난 후 자신들의 책을 모아 두었는데 이것이 많아지면서 후에 하나의 독자적인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홍도회 회원들이 조직한 독서클럽은 시설이 아니고 작은 조직이다. 따라서 이 조직을 나타내는 어휘를 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사용할 경우 독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구락부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겠다. 대신에 본 연구에서는 동 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순남(2013)도 ‘홍도회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홍도회’라는 단체가 도서관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도서관 앞에 단체명인 ‘홍도회’를 붙이고, 홍도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홍도회’앞에 국가명인 일본을 붙여 ‘일본홍도회도서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1) 백린(1982, 150)은 ‘韓國圖書館史研究’에서 목포독서구락부(木浦讀書俱樂部)라고 하였지만, 홍도회도서관은 부산독서구락부(釜山圖書俱樂部)라고 기술하여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와 독서구락부(圖書俱樂部)를 구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저자인 백린이나 아니면 인쇄과정에서 식자공이 독(讀)을 도(圖)로 혼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讀)과 도(圖)는 상당히 다른 글자이다.  
한편, 김남석(2010)은 목포독서구락부라고 기술하고 있어 홍도회도서관도 그 시작은 독서구락부가 아닌 독서구락부일 수도 있겠다.

2) 카토 카즈오 등의 책은 2009년 최석두에 의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카토 카즈오 등은 자신들의 책을 2005년에 출판하였기 때문에 2005년으로 기술하였다.

〈표 2〉 학자 및 연도별 홍도회도서관 관련 기술 내용

연구자 (연도, 페이지)	홍도회도서관 관련 내용
김포옥 (1979, 142)	사립중 우리나라에서 일본사람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1901년에 세워진 부산도서관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김세익 (1982, 221)	1897년 5월 부산에 일본 홍도회 부산지부가 설립되었고,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일종의 사회교육 시설로서 도서실을 설치, 도서를 수집하고 부산 거류민을 위한 열람에 응했다. ... 이 도서관은 그 후 부산도서관이 되었다.
김세익 (1982, 222)	한국의 근대 도서관사의 전개에 있어서 1909년의 대한도서관과 대동도서관을 기점으로 보는 일반론에 대하여, 1897년의 부산에 설치된 일본인들의 독서구락부를 그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김세익 (1982, 238)	1876년 3월 서촌무수(西村茂樹)가 창립한 일본 홍도회 부산지부에서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을 설립-운영하였으며 비록 일본인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1901년 10월 홍도회 부산지부에서 설립한 부산도서관은 1911년 5월 사립 부산교육회에서 인수하여 용두산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운영하였다.
백린 (1982, 150)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내에 설립된 도서관 또는 독서구락부는 일인(日人)만의 종람소로서 비록 한국 땅위에 설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신문화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도서관사상 그리 큰 의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합병 이후 이들 문고가 부립, 혹은 시립도서관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로서 볼 때 그도 무시 할 수 없으므로 ... 부산도서관은 1897년(明治30년) 5월 일본 홍도회원이 발기하여 일본 홍도회 부산지회가 설립한 것이다. 즉, 동회는 交西 山下町의 사무소내에 도서실을 설치하고 도서를 수집하여 부산 거류민의 열람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김경자 (2003, 47)	부산도서관(옛 용두산의 도서관)은 1897년 5월 일본 홍도회원이 발기하여 부산지회가 설립한 것이다. ... 1901년 이 땅에 최초로 설립된 '홍도회도서관'을 전신으로 하는 부산부립부산도서관(현 시민도서관)이 1963년 8월 부전동으로 청사를 옮긴 이래 ...
한국문헌정보학회 <sup>3)</sup> (2004, 177)	1876년 한일수호조약 체결 후 일본인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위한 독서시설로 독서구락부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부산에 부산독서구락부(현 부산시립도서관)가 창설된 것을 한국의 근대도서관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공공도서관적 성격을 가졌다.
도서관편람 (2009, 3)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의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서야 실제로 출현하게 되었다. 1901년 부산의 독서구락부 즉 홍도도서관, ...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최석두 (2009, 190)	개인문고나 독서클럽 중에는 후에 일본제국 직접지배기에 부립(府立) 혹은 시립의 공립도서관으로 바뀐 것도 몇 있었다. 예컨대 일본 홍도회 부산지부가 설립한 부산독서구락부(1901년)는 1903년 부산도서관이 되었다.
김남석 (2010, 93)	일본인의 많은 이주로 자신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1901년에 설립된 홍도도서관이다. 홍도도서관은 일본인이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교육시설이다. ... 홍도서관이 설립될 당시 부산의 일본인은 7,029명이었다.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의 해결방법으로 쉽게 설치 가능한 홍도서관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교육시설로 활용하였다. 홍도서관은 1901년 10월 도덕운동단체의 일본홍도회부산지부가 부산시가의 중앙 용두산공원 내에 있는 홍도회부산지부사무소에 도서를 수집해서 공중에게 열람케 한 것이다. 이것이 <b>조선 최초의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고, 또한 현대적 성격을 띤 한국의 최초 공공도서관이기도 하다.</b> 처음에는 홍도도서관이라 칭하다가 1903년 11월에 사무소를 개축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부산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정동열 (2014, 29)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 불리는 독서구락부가 1901년 부산에 설립되었다.
조찬식,조미아 (2011, 9)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 불리는 독서구락부가 1901년 부산에, ...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
곽철완 (2012, 192)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1901년에 개관한 부산도서관이 있다. 부산도서관은 1911년 사립 부산교육회에서 승계하여 운영하다가 ... 공립 공공도서관이 되었다.
최순남 (2013, 37)	부산시민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시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개항 100년을 훌쩍 넘긴 부산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다. 1901년 일본인들이 설립한 조그마한 홍도회 도서실(1901~1911)에서 출발하여 사립 부산교육회도서관(1911~1919), 부산부립도서관(1919~1945), ... 현재의 시민도서관(1982~ )에 이르는 11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공도서관이다.
오늘의 도서관 (2018, 41)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1901년 개관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117년의 역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증명한다. 1901년 부산의 일본인 전권거류지인 교서(交西) 산하정(山下町)에 일본인 상인모임 홍도회(弘道會) 부산지부가 개관한 '부산독서구락부'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의 모태다.
우지교 쯔요시 (김중희 번역) (2018, 16)	부산도서관은 1901년 10월 도덕운동 단체였던 일본 홍도회(弘道會) 부산지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초 '홍도도서관'이라고 명칭하였으나, 1903년 11월에 "부산도서관"으로 개명하였으며, 주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문화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도서관은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승계되었으며, 한국 도서관사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근대 공공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일본 도서관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도서관은 일본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도서관 중에서는 대만문고(대북시, 1901년 1월 설립)와 함께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었다.

## 2.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 조사·분석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사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한편, 학술연구 사례는 보이지 않지만 고찰 형태의 글들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희(2018)는 우지고 쯔요시(宇治郷穀)가 1985년에 쓴 ‘근대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를 번역하였다. 이 글에서 ‘이(홍도) 도서관이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승계되었으며, 한국 도서관사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근대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우지고 쯔요시는 1985년 ‘근대 한국도서관사 연구’ 결과를 ‘參考書誌研究’에 실었는데,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한국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연구논문이 담고 있는 참고문헌은 단행본이 6편, 학술논문이 10편으로 총 16편인데, 이중 한국 논문이 13편이나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봤을 때 우지고 쯔요시는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일본홍도회도서관이 한국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 IV. 일본홍도회도서관 설치·운영의 의미

### 1. 일본홍도회도서관 설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헌정보학 분야 많은 연구자들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01년 10월 일본인 단체에 의해 부산에 만들어진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술하고 있는 학자들은 김세익을 포함하여 다수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문헌정보학회가 발간한 주요 자료도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홍도회도서관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연구자는 김포옥(1979)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연구에서 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김포옥에 이어 홍도회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는 김세익(1982)과 백린(1982)이다. 김세익은 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작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하나 그도 ‘비록 일본인에 의한 것이

3) 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지만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있다. 백린(1982)도 한편으로는 일본홍도회도서관의 설치 의미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이 시설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인정하는 듯하다. 그런데 김세익과 백린의 홍도회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은 그 이후 여러 학자에 의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절대 사실로 기술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최석두(2009)와 박철완(2012)은 그의 저서에서 홍도회도서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이 시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표 3> 홍도회도서관의 변천 과정 및 명칭 변경<sup>4)</sup>

연 도	변천 과정 및 명칭 변경
1901. 10.	홍도회 부산지부에서 독서구락부 설치 (홍도회도서관 또는 홍도회 독서구락부도서관)
1911. 5.	사립부산교육회에서 도서관을 승계 후 용두산 중턱에 도서관 건물 신축 (사립부산교육회도서관)
1919. 4.	부산부 이관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발족 (부산부립도서관)
1945. 12	동광동 시교육위 청사에 도서관 이관
1949. 8.	명칭 변경 (부산시립도서관)
1963. 8.	동광동에서 부전동으로 신축 이전 (부산시립도서관)
1978. 1.	명칭 변경 (부산시립부산도서관)
1981. 4	명칭 변경 (부산직할시립부산도서관)
1982. 4.	부산진구 초읍동으로 신축 이전 (부산직할시립시민도서관)
1995. 1.	명칭 변경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학자들이 홍도회도서관에 대해서 기술할 때 한국 학자들의 홍도회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에 앞서서 홍도회도서관을 한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지고 쓰요시(2018, 13)는 그의 '근대 한국도서관사 연구<sup>5)</sup>'를 집필할 때 한국 학자들의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본고(本考)는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도서관학과 역사학의 연구 성과에 많은 힘을 입었다. 특히, 백린, 이흥구, 박희영, 안춘근 제씨의 종래의 도서관사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 김포옥, 권은경씨 등, 젊은 연구자의 최근의 업적도 참고로 하였다.

4)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연혁. <<http://www.siminlib.go.kr/sub.asp?mcode=1&scode=2&scodel=2>> [인용 2018. 5. 2].

5) 원제목은 “近代 韓國圖書館史の研究.” 參考書誌研究, 第30號(1985年 9月): 1-22.

## 2. 설치의 역사적 배경

홍도회도서실은 1897년 조직된 ‘일본홍도회부산지부’에 의해 1901년 10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도회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시대의 우리나라 역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세익(1982, 221)은 홍도회도서실이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1897년 5월 부산에 일본홍도회부산지부가 설립되었고,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일종의 사회교육 시설로서 도서실을 설치, 도서를 수집하고 부산 거류민을 위한 열람에 응했다.’라고 하였다.

김세익(1982), 백린(1982), 김남석(2010)에 의하면 홍도회도서실이 세워진 1901년경에 부산에 많은 일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에 일본인이 대거 이주하게 된 것은 1876년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강화도조약<sup>6)</sup>이 체결되고 부산이 개항한 이후이다. 개항 이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이 부산으로 이주하여 초량왜관터에 일본인전관거류지<sup>7)</sup>가 조성되었다. 바로 이 전관거류지 내에 홍도회도서실이 설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홍도회도서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해당하는 초량왜관터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부산에 초량왜관이 설치된 이유는 임진왜란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 전부터 부산에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왜관이 설치되었다. 부산왜관은 조선 초기 일본인 사절을 위한 접대 장소이자 숙박 장소로서 부산포, 제포, 염포 세 곳에 설치된 삼포 왜관중의 하나다(김백영 2014, 15). 그러나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및 무역을 중단하기 위해 왜관을 폐지하였다. 그 후 1678년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다시 현 용두산 근처에 약 330,000m<sup>2</sup> 크기의 초량왜관을 설치하였다.

부산왜관이 초량왜관으로 불리게 된 것은 부산의 왜관이 지금의 용두산 근처 초량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왜관이 초량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양란 이후인 1678년부터인데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던 초량왜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인전관거류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김백영 2014, 15).

한편, 카토 카즈오 등(2009, 182-183)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실질

6) 정식명칭은 ‘朝日修好條規’임

7) 전관거류지는 지금의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미군기지처럼 우리나라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으로 특정 국가의 행정권과 경찰권 등이 행사되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적인 식민지배를 시작하였지만 1877년 한성에 일본 공사관을 개설하고 부산에 이어 인천과 원산을 개항시킬 때부터 조선 침략은 시작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으로 간접통치가 시작되고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으로 직접지배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세력이 조선 국내에 침입한 방법을 보면 1876년 조일수호조약(강화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키고, 다음해 1877년 한성(漢城)에 일본 공사관을 개설하고, 인천, 원산, 등을 개항시킬 때부터 침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강압적 위협하에 1876년 한일간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면서 많은 일본인이 부산에 이주해 왔고, 이들은 초량왜관터에 일본인전관거류지를 만들어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홍도회가 1897년 일본인전관거류지 내에 부산지부를 조직하였고 1901년에 홍도회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수년 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홍도회도서관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용두산공원 일대를 직접 탐방하였고, 그곳이 구한말 일본인전관거류지로 명칭이 변경된 초량왜관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홍도회도서관은 비록 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일본홍도회도서관의 명칭

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술하는 것의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 명칭과 관련된 것이다. 홍도회도서관의 명칭 문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논의점이 있다. 그 첫째는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초기 홍도회도서관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문헌에 소개된 홍도회도서관과 관련된 명칭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경자(2003)는 홍도회도서관, 도서관구락부, 문고, 부산도서관, 용두산의 도서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홍도회도서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본홍도회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헌을 통해 봤을 때 홍도회라는 단체가 존재했고, 이 단체가 오늘날의 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홍도회의 회원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날의 독서회(reading club)와 같은 독서구락부(reading club)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서구락부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독서를 위해 책을 모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과 사서들은 일정 규모의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서실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보다 먼저 독서 및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킨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대적인 개념의 도서관이 1852년 만체스터(Manchester)에 들어서기 전까지 회원제도서관(subscription library)이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이 회원제도서관은 1720년대부터 영국에서 활동하던 Book Club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이 Book Club이 홍도회의 독서구락부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Book Club이 도서관으로 발전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발견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애너하임공공도서관(Anaheim Public Library)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도서관의 연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884년 Sheridan 목사가 로스엔젤레스 거리에 있는 건물에 젊은 남성들의 사교클럽(Young Men’s Social Club)과 좋은 신문과 책을 갖춘 도서실(reading room)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도서실이 오늘날의 애너하임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곽철완(2012, 192)은 홍도회도서실을 현재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의 전신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홍도회도서실을 우리 공공도서관의 효시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1901년에 개관한 부산도서관이 있다. 부산도서관은 1911년 사립 부산교육회에서 승계하여 운영하다가 1919년 부산부로 이관되어 공립 공공도서관이 되었다. 1948년 부산시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으로 개칭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곽철완의 홍도회도서실 명칭에 대한 기술 방식은 다른 동료 학자나 후학 그리고 일반인들의 우리나라 초기 도서관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는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1901년에 개관한 부산도서관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본 후학과 일반인들은 오늘날의 부산도서관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1901년에 개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01년에 건립된 당시의 명칭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개관 당시의 명칭은 ‘홍도회 도서실’ 혹은 ‘홍도회 독서구락부 도서실’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산도서관’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김포옥의 연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포옥(1979, 142)은 그녀의 논문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에서 “사립중 우리나라에서 일본사람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1901년에 세워진 부산도서관을 대표로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산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1973, 131)에 의하면 ‘한국에 있어서 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 사용된 것은 광무 10년(1906)이고, 이 이전에는 일정한 명칭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카토 카즈오 등(2009, 351)의 저술에 소개된 ‘일본 구(舊)식민지 도서관 연표’에 의하면 ‘1901에 부산독서구락부 설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1903년에는 ‘홍도도서관, 부산도서관으로 개칭’이라고 기술한다. 즉 어느 순간 2년 사이에 부산독서구락부가 홍도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부산도서관’이나 ‘홍도(회)도서관’등 도서관이 붙은 명칭은 설립 당시 존재했던 이름이 아니라 후대 학자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하겠다.

#### 4. 설치 및 운영 목적

한 도서관의 건립·운영 목적을 밝히는 것은 그 도서관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홍도회도서관의 건립·운영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이 시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세익(1982), 백린(1982), 한국문헌정보학회(2004), 김남석(2010) 그리고 일본인 학자인 우지코 쓰요시(2018)는 홍도회도서관이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로 건립·운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 도서관은 설립 당시부터 부산 시민들을 위해 건립·운영된 시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포옥(1979, 161)은 일제에 의해 설립된 근대 도서관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제에 의해 설립된 근대 도서관들은 우리 조선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땅에 심어지게 된 것으로 사실상 이들 도서관들은 설립 당시부터 우리 대중과는 유리된 존재가 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설립 당시부터 우리 국민들의 이용과는 거리가 먼 일본인들이 설립한 도서관들은 일제강점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인들만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북지방에 설립되었던 대동서관(大同書觀)과 같은 사립 공공도서관도 합병 후 얼마 아니하여 폐쇄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 3.1운동이 있는 후 총독의 무단정치가 다소 완화되어 문화정치로 바뀌어질 때 까지 도서관의 혜택을 전연 받을 수 없었던 문화의 공백 속에 살아온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1973, 139).

그런데 일본인에 의해 일본인을 위해 설치된 도서관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일제강

점기 동안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이다. 김포옥(1979, 143)은 ‘(우리나라에서의) 일본인의 도서관 설립은 초기에는 그네들의 교양 교육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나, 이것이 후에 가서는 식민지정책의 일구현(一具顯)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료센터로서 활용되어왔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최석두(2009, 14)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도서관을 설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첫째, 식민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나 군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식민지의 일본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거나 식민정책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침략한 나라의 민중을 일본인화하는 정책 소위 황민화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김남석(2010)은 홍도회도서관을 ‘조선 최초의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고, 또한 현대적 성격을 띤 한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도서관이 현대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건립의 공비성’<sup>8)</sup>인데, 이것은 도서관이 공공예산으로 건립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설과 자료의 대중을 위한 무료 개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홍도회도서관이 현대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1852년에 문을 연 영국의 만체스터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1850년에 제정된 영국의 도서관법<sup>9)</sup>, 즉 공적비용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자료는 무료 이용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개관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홍도회도서관은 현대적 개념의 도서관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이 도서관은 공공예산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민간단체가 도서관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도서관 자료가 무료 이용이었던지가 확실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자료의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무료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서관은 개관 당시 일본인에게만 개방되었고 조선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홍도회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의 목적을 살펴보면 현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홍도회도서관은 우리 땅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고, 더불어 설립 이후에도 많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 운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도서관을 우

8) ‘건립의 공비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국제적)으로 현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과 그 이전의 공공도서관을 구분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특정 공공도서관이 누구(어느 기관)에 의해서 건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1850년 이후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비용을 들여 건립하기 시작한 공공도서관을 현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한다.

9) 정확히는 도서관박물관법(Library and Museum Act)임.

리나라 도서관사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 5. 장서 및 건물 규모

홍도회가 설치했다는 시설이 오늘날과 같은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가 있어야 하고, 그 장서를 둘 공간 그리고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홍도회도서관의 장서와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학자 우지코 쓰요시(2018, 16)에 의하면 홍도회도서관은 도서 6천책과 약간의 신문잡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설립 당초는 도서 6천책과 약간의 신문잡지를 구비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갔다.’라고 하였다.

김남석(2010, 94)도 홍도회도서관이 우지코 쓰요시가 주장한 규모의 장서 약 6,000여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01년 당시는 화서와 한서로 된 약 6,000여 책의 자료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1922년부터 1935년까지 13년 동안 13,697책으로 늘어났지만 양서는 286책에서 496책으로 겨우 210책이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은 일본어 자료 위주의 장서구성 이었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남석(2010, 94)은 홍도회도서관이 조선인에게 개방한 이후에도 한국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거의 일본어 자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한 일본의 지배이데올로기 보급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김경자(2003, 45)는 홍도회도서관의 장서규모를 우지코 쓰요시와 김남석보다 조금 작은 5,000여권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부산부립도서관의 전신인 부산도서관은 1901년 10월 홍도회 부산지부에서 일·한문서 약 5,000여권으로 도서관을 일반에 공개하였다.’라고 하였다.

홍도회도서관의 건물 규모는 아래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김경자(2003, 45)는 홍도회도서관의 규모는 ‘부지 316.75평에 목조 2층 본관 30평과 부속건물 16평 서고 9평으로 열람실이 1실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린(1982)에 의하면 이러한 규모는 1901년 처음 설치 당시의 모습은 아니었고 설치 후 40여년이 지난 1945년 시기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린에 의하면 1936년 시기에도 홍도회도서관의 규모는 매우 작아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는 홍도회도서관의 규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36년에 이르러 도서관을 신축 부산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그렇지만 극히 작은 규모로서 도서관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부산교육회에서 계승하여 1944년 11월 용두산 중턱에 약식 2층 건물 총평 44평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1945년 6월부터 개관하기에 이른 것이다 (백린 1982, 105).

이상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홍도회도서관의 건물 규모는 설치 당시부터 1945년 용두산에 신축건물로 개관하기 전까지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서는 5~6천여권이었으나 한국자료는 없었고 서양 및 한문서적 일부만 있고 거의 일본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본자료 중심의 장서구성을 가진 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 차원에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 일본홍도회 및 일본홍도회 부산지부

도서관사 연구에서는 한 도서관의 건립·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그 시설의 운영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바로 전의 정치·사회적으로 혼란 시기에 일본의 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도서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일본홍도회도서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가연(2014)은 일본홍도회를 1876년 일본에서 발족된 ‘국민 도덕 진흥 및 도의 국가 건설을 제창한 민간단체’라고 하였고, 홍도회도서관을 설치한 부산지회는 일본홍도회의 유일한 해외 지회라고 주장하였다.

일본홍도회(日本弘道會)는 1876년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가 국민 도덕의 진흥, 도의(道義) 국가의 건설을 제창하며 설립한 동경수신학사(東京修身學社)가 그 전신이다. 이후 1884년 일본 강도회(日本講道會)를 거쳐, 1887년 일본홍도회로 개칭하였다. 일본홍도회 한국지회는 홍도회의 유일한 해외 지회로 부산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전영섭(2014)에 의하면 부산지부가 한국의 유일한 지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영섭은 1909년경에 아라나미 헤이치로(荒浪平治郎)가 경성에 홍도회 지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가연(2014)이 말한 ‘일본홍도회의 지회는 일본 내의 각 부현(府縣)을 통틀어 1906년 현재 136개이며, 홋카이도·대만·한국[부산]에 각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면 1906년까지는 부산지회가 유일하였으나 1909년경 경성에 홍도회 지회가 추가로 설치되어 한국에 두 개의 지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이가연(2014)은 홍도회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는 ‘일본홍도회는 도덕을 숭상하고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교·철학·종교 등을 종합하여 창립되었으며, 한국에도 그러한 정신을 퍼뜨리고자 부산에 지회를 설립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일본홍도회는 19세기 말 일본인의 시민의식 개혁을 이끄는 순수한 사회운동 혹은 시민운동 단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안찬수(2017)에 의하면 일본홍도회는 일본의 조선식민통치를 가져온 일본의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

단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안찬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메이지시대 민족주의적 교화단체(로) 전신은 한때 문부성의 편집국장을 맡았던 <일본도덕론>의 저자 니시무라 시게키가 설립한 수신학사로 일본강도회를 거쳐 메이지 20년(1887) 니혼코도카이(ニホンコドウカイ, 일본홍도회)로 개칭(함). 기관지 「코도」를 간행하고 수신 도덕 교육을 주장했다. ... 또한 황실중심주의의 국민 도덕 보급에 노력했다.’

이가연(2014)도 안찬수와 비슷하게 홍도회를 ‘군국주의 성향의 교화단체’로 정의하였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홍도회 부산지부는 일본의 한국침탈에 일조한 단체였던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홍도회가 설치한 도서실은 이 단체가 펼친 여러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홍도회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본홍도회는 **군국주의 성향의 교화단체**로, 한국지회가 부산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산이 일본인들의 한국 침략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것과 부산이 한국 최고의 식민도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전시에는 지회가 본회와 상응하여 국민 충용의 정신을 고무시키기 위해 강연회·총회·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부상병 위문, 출정 군인 가족의 보호구휼, 출정 군인에 대한 물품 기증 등을 행하였다. ... 부산에서는 교육 사업도 진행하여 1899년 2월 중학교 과정의 수업[정규 교육 과정은 아님]을 개시하였다. 홍도회 사업에는 도서관 사업도 있었는데, 이것이 부산부립도서관의 시초가 되었다.

김경자(2003, 41)는 “부산 도서관(옛 용두산의 도서관)은 1897년 5월 일본 홍도회원이 발기하여 부산지회가 설립한 것이다.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설립된 독서구락부 또는 문고는 일본인만의 열람시설로서 비록 한국 땅에 설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신문화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였으나 이후 시립도서관으로 변신하였기에 역사상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포옥에 의하면 홍도회도서실을 포함한 일본인들에 의한 도서관운동은 오히려 개화기 우리나라의 신문화 및 도서관운동을 봉쇄하였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공공도서관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포옥(1978, 152)은 “(개화기) 지식인들의 자각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좌절을 겪게 되었고, 식민지 시대 일제에 의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식민정책의 구현장치로 활용되어 우리 국민을 위한 지식 접근과 보급은 봉쇄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였다.

#### IV. 맺음말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즉,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학자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술되고 있는 1901년 부산에 건립된 일본홍도회도서관의 의미를 도서관사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결과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기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본홍도회도서관은 1901년 우리나라 부산에 건립되었지만 일본인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비록 이 시설이 오늘의 부산대표도서관인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발전하였지만 외국인 그것도 일제강점기 전의 일본인 단체에 의해 건립된 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일본홍도회도서관은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오로지 부산의 특정 구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일본인들만을 위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보편적 이용이다. 즉, 누구에게나 자료와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다. 홍도회도서관은 이 가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도서관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 즉, 그 당시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들만을 위한 시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 역사에 기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셋째,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은 일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설이 일본인 단체에 의해 건립되고, 일본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던 기간에도 이 도서관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있는 장서가 일본자료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도서관의 삼 요소 중 자료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자료가 한국자료가 아니고 일본자료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정신과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 일본어의 사용과 일본식 교육을 강제 시행했던 시기에 한국자료가 없는 시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일본홍도회도서관을 건립한 단체인 일본홍도회는 일제강점기 전과 그 기간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militarism)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단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체, 즉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인 강제적인 한일합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제 점령을 주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 단체가 설치·운영한 시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자신들의 전신을 자신들의 역사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도서관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신들의 연혁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은 역시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역시 경성제국대학 시절을 자신들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은 부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이다.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전신으로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서울대학교의 기관 역사 기술방식을 한 번쯤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이유를 통해 봤을 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주장 즉, ‘일본홍도회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시다’라는 역사 기술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볼 수 없다면 다른 대안 도서관<sup>10)</sup>을 찾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자 및 도서관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인식하는 것을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재고찰 및 분석하는데 있다. 즉, 홍도회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어떤 도서관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곽철완. 2012. 『도서관의 역사: 권력에 따른 도서관의 발달과 쇠퇴』. 서울: 조은글터.
- 권은경. 1981. 開化期·日帝治下の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 『圖書館研究』, 22(4): 7-29.
- 김경자. 2003. 『부산의 공공도서관. 釜山의 圖書館史』. 부산: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 김남석. 2010.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대구: 태일사.
- 김백영. 2014. 인천항설비일반: 근대 한국의 항만은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오늘의 도서관』, 227: 12-15.
- 김세익. 1982. 『도서-인쇄-도서관사』. 서울: 종로서적.

10)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이용재(이용재, 조재순 2006, 3-4)는 200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2<sup>nd</sup>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Seoul)에서 1906년에 평양 종로에서 조선인 유지들에 의해 설립된 대동서관(大同書館)을 근대적 의미에서의 한국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소개하고, 아울러 같은 해에 이근상, 이범구, 윤치호 등과 같은 조선의 개화 선구자들이 평의회를 구성하여 설립한 ‘한국도서관(韓國圖書館, 후일 大韓圖書館)’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국립도서관으로 보고하였다.

- 김포옥. 1978. 『日政下 韓國公共圖書館研究』.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포옥. 1979.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6: 137-163.
- 백 린. 1982.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박현민. 2018.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259: 40-43.
- 안찬수. 2017. 안찬수의 더 느린 질주: 니혼코도카이/일본홍도회/日本弘道会(ニホンコドウカイ)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http://transpoet-textcube.blogspot.kr/2017/10/blog-post\\_85.html](http://transpoet-textcube.blogspot.kr/2017/10/blog-post_85.html)> [인용 2018. 5. 4].
- 서호철. 2016. 조선이주안내: 1900년대 일본인을 위한 조선이주안내서. 『오늘의 도서관』, 242: 14-17.
- 우지고 쓰요시(宇治郷毅). 2018. 근대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 (1)-개화기부터 1920년대 까지 -. 김종희 옮김. 『도서관문화』, 59(1): 12-17.
- 이가연. 2014. 일본홍도회 한국지회.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 [인용 2018. 5. 2].
- 이용재, 조재순. 2006. 한국에서의 근대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역사.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제72회 IFLA 학술대회 및 총회』. 2006년 8월 20-24일. 서울: 코엑스. <[https://archive.ifla.org/IV/ifla72/papers/119-Lee\\_Jo-en.pdf](https://archive.ifla.org/IV/ifla72/papers/119-Lee_Jo-en.pdf)> [인용 2018. 6. 13].
- 전영섭. 2014. 일본홍도회 한국지회.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 [인용 2018. 5. 2].
- 정동열. 2014. 『도서관경영론』. 개정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조찬식, 조미아. 2011. 『공공도서관의 이해와 분석』. 서울: 에듀컨텐츠휴피아.
- 최순남. 2013.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부산의 지역 대표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국회도서관』, 407: 36-39.
-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9.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최석두 옮김. 파주: 한울.
-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003. 『釜山の 圖書館史』. 부산: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Chan-Soo. 2017. Ahn Chan-Soo's slower run: Nihon Kodokai/Japanese Hongdohoe and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http://transpoet-textcube.blogspot.kr/2017/10/blog-post\\_85.html](http://transpoet-textcube.blogspot.kr/2017/10/blog-post_85.html)> [cited 2018. 5. 4].
- Baek, Lin. 1982. *A Study on Korean Library Histo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Busan District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The Library History of Busan*. Busan: Busan District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Cho, Chan-Sik and Miah Cho. 2011. *Understanding and Analyses of the Public Library*. Seoul: Educontentshupia.
- Choi, Sun-Nam. 2013.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the Representative Library of Busan in which tradition and future coexist." *National Assembly Library*, 407: 36-39.
- Jeon, Young-Seob. 2014. "The Korean Branch of Japanese Hongdohoe." *The Digital Encyclopedia of Busan History and Culture*.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 [cited 2018. 5. 2].
- Jong, Dong-Youl. 2014. *Library Management*. 3<sup>rd</sup>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ato, Kazuo, Kawata, Iko, Tojo, Fuminori. 2009. *Japanese Colonial Library*. Translated by Suk-Doo Choi. Paju: Hanul.
- Kim, Baek-Young. 2014. "Incheon Port Facilities." *Today's Library*, 227: 12-15.
- Kim, Kyeong-Ja. 2003. *Public Libraries of Busan, the Library History of Busan*. Busan: Busan District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im, Nam-Seok. 2010. *Libraries and Social Education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Daegu: Taeilsa.
- Kim, Po-Ok. 1979. "Study on the Korean Public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the Japanese Ru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4): 137-163.
- Kim, Se-Ik. 1982. *Books-Printing-Library History*. Seoul: Jongno Seojeok.
- Kwak, Chul-Wan. 2012. *A Library History: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Library by Power*. Seoul: Joeun Geulteo.
- Kwon, Eun-Kyung. 1981. "A Study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and Japanese Colonial Rule." *Doseogwan Yeongu*, 22(4): 7-29.
- Lee, Ka-Yeon. 2014. "The Korean Branch of Japanese Hongdohoe." *The Digital Encyclopedia of Busan History and Culture*.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 [cited 2018. 5. 2].
- Lee, Yong-Jae and Jae-Soon Jo. 2006. "The Modern History of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in Korea." *2006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72<sup>nd</sup>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24 August 2006, Seoul, Korea.  
<[https://archive.ifla.org/IV/ifla72/papers/119-Lee\\_Jo-en.pdf](https://archive.ifla.org/IV/ifla72/papers/119-Lee_Jo-en.pdf)> [cited 2018. 6. 13].
- Park, Hyeon-Min. 2018.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Today’s Library*, 259: 40–43.
- Seo, Ho-Chu. 2016. “Guide to Migration to Korea: Migration Guidebook for Japanese in the 1900s.” *Today’s Library*, 242: 14–17.
- Ujigo, Tsuyoshi. 2018. “A Study on Modern Korean Public Libraries (1) – From the Modernization Period to the 1920s.” Translated by Jong-Hoe Kim. *Library Culture*, 59(1): 12–17.